현불 논단

산사의 대중살이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큰 절에 들어와 몇 해를 살다보니
도둑 들까, 불날까, 손님 올까 등
잡다한 근심 걱정 저절로 사라져

스님에게 '대중에 산다' 특별 의미
투박한 언행, 온갖 감정을 다듬고
짜여진 규칙, 대중 행사 철저해야
그래야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

'대중 생활 번잡하지 않냐' 묻지만
난 대중에 사는 게 기쁨이고 행복

10여 년 말사 주지를 살다가 큰 절 대중에 들어와서 몇 해 살다 보니 잡다한 근심 걱정들이 저절로 다 사라져 버렸다. 도둑 들까. 불날까. 손님 올까. 물난리 날까. 식구들 싸울까. 주지의 고민은 한도 끝도 없었다.

출가자에게 '대중에 산다' 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다. 흔히 대중에 사는 것을 '시냇물에 나뭇잎 떠가듯 한다' 고 하기도 한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겨서 거스름 없이 유연하게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이다. 어쩌면 세상의 누구보다 강한 개성과 특별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스님들이지만, 오직 구도를 위해 대중에 살면서 거칠고 투박한 언행을 다듬고, 불쑥불쑥 솟아나는 갖가지 감정들과 생각들을 닦아가며 사는 생활이 바로 대중생활이다. 대중에 살기 위해서는 예불, 공양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울력과 각종 대중의 행사에 철저해야 한다. 그래야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

대중생활은 역설적이게도 속박과 자유가 동시에 존재한다. 짜여진 대중의 규정과 틀 속에서는 자유롭지만 그 규정과 틀을 지켜야 하는 일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나뭇잎처럼 자신을 버리는 것도, 물결에 몸을 맡기듯 대중과 화합하는 것도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출가 때부터 수덕사 스님들이 대중에 사는 법에 대해서 자주 듣곤 했다. 선원에서 수행할 때는 묵묵히 화두삼매에 들어 수행하고, 법당에서 염불을 해야 하면 음성과 운곡을 뚜렷하게 하여 스님들과 신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법문을 해야 하면 법상에 올라 당당한 법문을 설하는 법사가 될 것이며, 소임을 맡으면 공사구분을 분명히 하여 대중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손님이 오고 갈 때는 맞이하고 보내는데 예의와 법도를 잃지 않아야 하며, 어떤 소임이나 일이라도 대중에 정한 일은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전국의 어느 도량에 가더라도 수덕사 식구라고 하면 대중살이의 원만함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근대의 대선지식 만공선사의 수행가풍이 면면이 이어져 온 까닭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중노릇하는 밥값을 하려면 이런저런 대중의 소임을 피할 수도 없으니 이왕 하려면 잘하라는 것이리라.

몇 년 큰절 한 편에 조용한 방을 얻어 살다가 작년 가을 10여 평 독채 오두막으로 이사를 왔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사를 하다 보니 살림살이가 훤히 드러났다. 쓰잘데기 없는 잡다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숨이 절로 나왔다. 대충 나눠줄 것과 버릴 것들을 정리해도 남은 짐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오두막살이는 또 새로운 살림살이를 필요로 했다. 주변의 풀이랑 잡목을 정리할 톱이며 낫에 삽이며 괭이 등 갖가지 도구와 공구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이 해제 때가 되면 '토굴 시봉' 한다더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작은 집 한 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참 손이 많이 가고 번잡하다.

큰 절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이라고 별별 희한한 일들이 생기곤 한다. 집근처에 커다란 구렁이가 허물을 벗어 놓아 놀라게도 하고, 두더지가 땅을 파놓아서 새벽예불길에 발을 접질리기도 하며, 산짐승들이 여기저기 똥을 싸놓기도 하고, 창문이라도 열어 놓으면 갖가지 벌레들이 제집인양 드나들기도 한다. 그래도 창문조차 제대로 열기 어려웠던 큰 절 생활에 비하면 무척 자유롭고 즐겁다.

예불 다녀오면 천 걸음, 공양 다녀와도 천 걸음, 이리저리 하루 6000 걸음은 기본이다. '대중에 사는 게 불편하고 번잡하지 않냐' 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즐겁고 편하고 좋다. 대중에 산다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社 說

사회통합에 불교·정계 힘모아야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9월 21일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성파 대종사의 종정 취임 이후 산문 밖 대중설법 역시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날 성파 대종사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차담에서 여야 갈등에 매몰된 정치권에게 국민화합과 상생을 위한 행보를 걸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정각회 후반기 회장에 주호영 의원이 취임한 후 처음 봉행된 법회에 여야 불자 의원을 비롯해 국회 직원불자와 조계종 총무원 소임자 스님, 신도 등이 300석이 넘는 객석을 가득 채웠다.

이날 성파 대종사는 불교는 호국정신으로 국난 위기 속에 큰 힘이 되어 왔음을 주지시키고, 시종일관 우리 안에는 어려움을 극복해 낼 지혜가 있기에 힘을 모아 정진해 나가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려움을 맞았을 때 불교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한반도 역사와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불교는 그만큼 깊이 스며있다.

정치권은 불교가 우리 사회와 뗄 수 없는 관계란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불교가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 오랜 세월 한반도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스며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

장자종단의 새로운 종정, 새로운 총무원장과 함께 불교는 앞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에서 불교수행에 근간을 둔 정신문화 보급과 함께, 사회현안에도 힘을 보태려 하고 있다.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전통문화 계승과 보전을 넘어 새로운 문화 창달에 나서고, 불교의 역할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백만원력의 힘, 계속되길

2018년 9월 28일 조계종은 전임 총무원장 사퇴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36대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원행 스님의 앞에는 혼란에 빠진 사부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제가 있었다. '안정과 화합' 은 제36대 집행부의 화두가 됐다.

이러한 가운데 제36대 총무원장으로서 원행 스님은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화합과 혁신의 미래불교' 를 서원하며 내건 백만원력 결집불사 아래 불자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기치 아래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세종 광제사 및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계룡대 호국홍제사 건립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불교는 일사분란하게 각종 법회와 행사 취소 등의 결단을 내리고 대응했다. 연등회 취소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단으로 불교계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성보가 제자리를 찾는데 힘썼다. 또 불교성전을 편찬해 수지독송의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함께 불교계가 만들어간 4년은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불교가 희망의 연꽃을 피워내는 시간이었다.

이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9월 27일 4년 간의 소임을 마무리했다. 원행 스님은 우리 모두 부처님 그늘 속에서 청량함을 이루고 다함께 불국토가 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정진하자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제 바톤은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로 넘어갔다. 진우 스님은 원행 스님과 같이 사부대중의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을 천명했다.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새롭게 전진할 때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⑧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산과 바다 사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그 '헤어질 대상' 이 연인인 까닭에 멜로 영화다. 정해준(박해일 분)이 두 번째 남편과 재혼한 이유를 묻자 송서래(탕웨이 분)는 "다른 남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느라 결혼했다"고 말한다. 극중에서 서래는 네 차례 헤어질 결심을 한다. 처음으로 헤어질 결심을 하는 대상은 폭행을 일삼는 첫 번째 남편 기도수다. 송서래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짠 뒤 산 정상에서 기도수를 밀어뜨려서 살해한다. 정해준은 이 사건을 맡은 부산경찰서 팀장이다.

송서래는 알리바이가 확실해 혐의에서 자유로워진다. 사건 당일 한 노인을 간병한 사실이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정해준은 송서래가 기도수를 살해했음을 뒤늦게 안다. 그 순간 정해준은 이 사건을 자살로 종결지은 이유가 피의자의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피의자를 사랑했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정해준은 결정적 직접 증거가 저장된 휴대폰을 아무도 못 찾게 바다 깊은 데 빠뜨려서 은폐하라고 지시한다.

정해준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송서래의 사랑은 시작된다. 송서래는 "여자에 미쳐서 사건을 망쳤다"는 정해준의 음성 파일을 듣고 또 듣는다. 그 음성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에는 남편을 살해한 결정적 증거도 담겨 있는데도…. 송서래는 정해준과 헤어질 결심을 하느라 애널리스트인 임호신과 결혼한다. 그리고 정해준이 사는 이포시로 이사한다. 그런데 임호신이 정해준과의 음성파일을 발견한 뒤 송서래를 협박한다. 하여 송서래는 임호신과도 헤어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송서래는 철성을 교묘히 교사하여 임호신을 살해토록 한다. 정해준과 송서래는 형사와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만난다. 그런 와중에도 둘은 송서래의 할아버지와 어머니 유골을 뿌리러 호미산에 오른다. 송서래는 다시 정해준과 헤어질 결심을 한다. 정해준이 지시한 대로 아무도 찾지 못하게 바다 속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이 영화는 산과 바다라는 두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공무원 신분의 등산가인 기도수가 산을 대변한다면 자유로운 성격의 소유자인 임호신은 바다를 대변한다. 그렇다면 정해준과 송서래는 산과 바다 중 어디에 해당할까? 송서래가 지자요수(智者樂水)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한 뒤 자신은 어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자 정해준도 자신도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런가 하면, 정해준이 송서래를 사랑하는 이유가 몸이 꼿꼿해서이고, 서래가 정해준을 보는 순간부터 좋았던 이유는 품위 있어서이다. 산과 바다의 사이에 둘의 사랑도 있는 것이다.

이 영화의 주제는 마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선 제목이 헤어질 '결심(決心)' 이다. 까마귀를 물어온 고양이에게 송서래는 "나한테 선물을 꼭 하고 싶다면,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주세요. 난 좀 갖고 싶네"라고 말한다. 나중에 정해준이 "왜 내 심장을 갖고 싶냐"고 묻자 "마음"이라고 답한다.

마조 선사는 심즉시불(心卽是佛), 즉, 마음이 부처라고 일깨워주면서 그 방법으로 '도불용수(道不用修) 단막오염(但莫汚染)' 즉, '도는 닦을 필요가 없고 다만 오염되지만 않으면 된다' 고 했다. 사랑도 다르지 않으리라.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마음 달이 홀로 밝으니 …'
편찬자 보각, 대중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머리 조아려 삼배 올립니다.

마지막 13판은 돈이 없어 유고로 남기려 했는데 빈도 가면 할 사람 없고, 12번 배포가 선원 중심이라 사부대중에게 전달 못해 아쉬웠는데, 보시로 문제가 해결되나 대중공양에 값을 매김(권당만원, 농협312-0193-6901-41, 계주:정임상)은 정법이 아니니 돈 없어도 신청하세요.

◈ 10월10일까지 신청서가 도착되어야 마무리하고 동지절 경신일에 갈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7-8번지 501호 위 옥탑법당 보각스님
◈ 사찰명(신행단체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택배에 필요), 신청부수, 입금액 기재해 편지주세요.
(전화 010-2458-0379 있으나 이석증으로 통화가 불가능하고 문자마저 서툴러 꺼두고 있음.)
◈ 내용 : 신심명, 법보단경, 증도가, 법성게, 천부경, 비파시불 이래 역대불조 전법게, 정법진언, 실참(수행 요령) 등 805면에 소신공양 자세로 소납 정성 모두 담았습니다.
◈ 12판과 다르나 돈이 없으니 선원, 강원, 율원도 신청하셔야 인쇄, 송부가 가능합니다. 군소종단 종도, 청신사, 청신녀도 신청, 정법으로 수행 금생에 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로 소납 하직 인사에 가름하오니 부디 열심히 정정진하여 금생에 성불하소서.

釋迦牟尼佛 瑞相受戒親法子 桓國沙門 曉瞰 釋普覺 謹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원가 상승으로 10월 1일부터 부득이하게 가격이 인상 되오니 주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